



# 정교회주보

제2439호

2023.9.2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아테네 대교구청의 주교좌 대성당 옆에 위치한 성 엘레프테리오스 성당(사진)은 12세기 또는 13세기에 지어진 네 개의 기둥(19세기에 교각으로 대체되었다)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모양의 성당이다. 일명 '작은 주교좌 대성당'으로도 불린다. 성당 윗부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초기 교회 및 비잔틴 양식의 다양한 부조 90여 개가 장식되어 있다.



## 루가 제1주일

성 테클라 사도 대등 대순교자  
성 실루아노스 아토스성산 수도자  
(제7조 • 조과 복음 5)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디모테오 후 3,10~15 (봉)407
- 복음경 : 루가 5,1~11 ..... 12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구원받는 유일한 기회

**구**원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보장된 삶으로, 하느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상에서의 삶은 구원이라는 이 귀중한 선물을 얻을 유일한 기회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에덴동산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구원 받을 유일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후회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하는 후회는 너무 늦다. 그때는 우리가 이미 죽지 않는 구더기가(마르코 9,48) 있는 곳에, 영원히 불타는 꺼지지 않는 불이(마태오 3,12) 있는 지옥에 던져진 후이기 때문이다.

'구원으로 가는 길' 중에서

#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특징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사랑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베푸는 우리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풍성한 영적 열매를 선사합니다.

둘째,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선물을 베풁니다.

셋째, 사랑은 ‘효용적’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때로는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굶주리고 있다면, 그에게 말로써 훌륭한 조언을 전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을 통해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정신적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면, 영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넷째, 사랑은 존경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모욕하지 않아야 하며, 즉 그 사람이 멸시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에는 조건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성별과 인종과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번져 나갑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풁시다.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이 가르치듯,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야만 우리는 깨끗한 손뿐만 아니라 사랑의 선물을 가득 가진 채로 심판관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 갑시다.”(히브리 12,1)

프로드로모스 신부 (그리스 정교회)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신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하였습니다.”(행 14,22) 용기를 북돋우고 격려하는 것은 일대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수단입니다. 이때 격려하는 사람이 격려를 받는 사람 곁에 함께 있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것을 ‘빠라깔로’라고 하는데 이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격려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격려하는 사람이 격려를 받는 사람 곁에 있어야만 그가 의도하는 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언제나 가장 힘들고 진이 다 빠지는 운동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출발 때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들어올 때도 아닙니다. 중간에 선수가 매우 힘들다고 느끼면서 탈진해갈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달리는 속도를 똑같이 유지해야만 하며, 속도를 줄이거나 그만두고 싶은 욕구를 극복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선수를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뛰어본 선수들은 군중들의 격려와 응원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노라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손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뼉을 치거나, 아니면 ‘힘내세요!’, ‘끝까지 완주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등등의 팻말을 들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여,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 갑시다.”(히브리 12,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경기에 참여하고 있을 때, 서로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하겠습니까.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결승점을 넘어서 트로피와 메달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끈기 있게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이 신성한 경주를 완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도록 합시다!!

## 주간 예배 안내

\* 9월 26일(화)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자연재해로 희생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기후재난으로 하느님의 온 창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로코와 리비아, 그리스에서 발생한 지진, 홍수, 화재 등 재해로 수만 명이 숨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가족, 집, 재산 등 많은 것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가족 그리고 동료들 위에 하느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소식

### ■ 추석 추도식 안내

오는 9월 29일(금)은 우리 조상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교회에서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함께 거행됩니다.)

신자들께서는 꼴리바를 준비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안내

10월 3일(화),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아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조과는 9시 30분에, 성찬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 주시면 차편과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교회 묘지 관리비

성인의 가르침

## 사탄은 허점을 노린다

한 수도자가 영적 투쟁을 처음 시작한 장소에서 많은 유혹을 받았다. 인내심을 잃은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길을 나서려고 신발 끈을 묶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다른 누군가도 신발 끈을 묶고 있었다. 그래서 수도자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너를 몰아낸 장본인이지. 지금 네가 피신처로 삼으려는 그곳에 너보다 앞서가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바로 수도자를 내쫓으려고 시도한 사탄이었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에 수도자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낼 때까지 인내하며 영적 투쟁을 했기 때문이었다.